

수소 · UAM · 우주산업 관련 주간정책 동향

□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 동향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내용
수소	중앙	- (해당 없음)
	평택시	□ 정장선 평택시장 “반도체·수소 산업 상궤아·지방 경쟁력 강화” (2024.09.30) - 평택시는 수소와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미래형 도시로 거듭나고 있음. 수소 생산기지와 수소 항만을 구축하여 수소 경제의 중심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반도체 특화지구 지정 및 관련 인재 육성에도 주력 중 - 평택항은 수소 항만으로 조성되고 있으며, 청정수소를 활용해 물류 트럭, 선박 등에서의 에너지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음. 또한, RE100 달성을 위해 수소 기반 전력 공급망을 구축해 기업들의 친환경 전환을 지원할 예정 - 반도체 산업도 평택시 발전의 핵심으로 자리잡고 있음. 카이스트 평택캠퍼스를 중심으로 반도체 연구·개발 및 인재 양성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평택시는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허브로 자리잡을 계획 - 정장선 평택시장은 남은 임기 동안 평택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수소와 반도체 산업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지방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힘
	울산	□ 수소에너지 스마트팜 하랬더니 일반 전기로"...울산도시공사, 방만 운영 적발 (2024.09.30) - 울산도시공사가 수소 연료전지 스마트팜을 일반 전기로 운영한 사실이 적발됨. 이는 수소 시범 도시 특화 사업의 취지에 어긋나는 운영 방식으로 지적 - 울산도시공사의 방만한 운영 실태가 감사에서 다수 적발됨. 과도한 직원 복지비 지원, 부실한 자산 관리 등 여러 문제가 드러남 - 감사 결과, 울산도시공사는 지방공기업 지침에 맞지 않는 방식으로 직원 복지를 과도하게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실한 자산 관리는 공사 전반의 운영 투명성에 문제 제기 - 울산시 감사관실은 향후 울산도시공사가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추진할 예정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내용
	제주	□ 제주도, 수소 기반 에너지 저장 규제자유특구 후보 선정 (2024.09.30) - 제주도가 정부의 수소 기반 에너지 저장 규제자유특구 후보로 선정됨. 이는 탄소중립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 - 제주도는 2035년까지 지역 내 에너지원의 100%를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로 전환할 계획을 발표했으며, 이를 통해 탄소중립을 목표로 설정 - 규제자유특구로 최종 선정되면, 제주도는 그린수소 생산과 저장 기술을 활용하여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또한, 그린수소의 대규모 생산이 가능해짐에 따라 수소 관련 산업도 더욱 성장할 것으로 예상 - 제주도는 이번 특구 후보 선정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중요한 전략적 기회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기여할 것을 목표로 설정
	제주	□ 제주 수소경제, 2035 탄소중립 비전 실현 (2024.10.03) - 제주특별자치도는 '에너지대전환을 통한 2035 탄소중립 비전 실현을 위한 수소경제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함. 세미나에는 국내 청정수소 인증운영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과 제주연구원 등 에너지산업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 - 발표자들은 청정수소 기반의 글로벌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에너지 전환 시나리오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함. 에너지 유통체계 전환과 데이터 기반 지역 에너지 플랫폼 구축 전략도 제시 - 제주대학교와 그린에너지·미래모빌리티사업단이 함께 청정수소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제주에너지공사와의 협력으로 그린수소 생산 및 저장 기술을 개발 중 - 제주도는 에너지 인프라와 제도적 지원이 2035 탄소중립 비전을 실현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지속적인 연구와 지원을 요청
	용인	□ 용인특례시, 시민 대상 '수소 바로 알기' 우수 시설 견학 (2024.10.01) - 용인특례시는 시민들에게 수소의 중요성과 안전성을 알리기 위해 '수소 바로 알기' 견학 행사를 개최함. 이를 통해 수소가 실생활에서 안전하고 친근한 에너지원으로 인식되기를 기대 - 행사 참가자들은 충주 바이오그린수소충전소와 수소안전뮤지엄을 방문하여 수소의 생산, 저장, 안전성 등 다양한 측면을 학습함. 이를 통해 시민들은 수소가 친환경 에너지로서 기후변화 극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인식 - 충주 바이오그린수소충전소는 음식물 쓰레기에서 나오는 바이오가스로 하루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내용
		500kg의 수소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 수소는 충주시 전역의 수소충전소에 공급 - 용인특례시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수소도시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시민들이 수소 경제의 중요성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계획
UAM	중앙	- (해당 없음)
	지방	- (해당 없음)
우주	중앙	□ 과기정통부, 과기공동위 개최해 우주·바이오·원자력 등 협력 방안 모색 (2024.10.0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5차 한-체코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우주·바이오·원자력 등 협력 방안을 논의함. 이번 회의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순방 후속 논의의 일환으로 열림 - 양국은 우주, 바이오, 화학·소재, 디지털, 에너지 분야의 공동 연구와 협력 확대 방안을 구체화하였음. 특히 우주경제 발전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 - 바이오 분야에서는 뇌 노화와 퇴행성 질환 연구를 위한 공동 연구 협력 MOU에 대해 논의했고, 화학·소재 분야에서는 초강력 레이저를 활용한 연구센터 설립 방안 모색 - 에너지 분야에서는 핵융합 연구 및 실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디지털 분야에서는 초고속 인터넷 구축 및 5G 기술 고도화 협력에 대해 논의
	지방	□ 고흥 '우주항공해설사' 우주항공관광 프로그램 성공 밑거름 (2024.10.03) - 전남 고흥군이 운영하는 우주항공해설사 프로그램이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고흥군은 나로우주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우주항공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해설사들은 우주과학의 중요성과 미래산업 방향성을 소개 - 우주항공관광 프로그램인 '우주과학 열차' 여행상품은 KTX를 통해 고흥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음. 올해 5회 운영된 이 프로그램은 좌석이 완판되며 우주항공 해설사들의 역할이 더욱 주목받고 있음 - 고흥군은 10월 대전 사이언스 페스티벌에서 우주항공축제를 홍보할 예정이며, 이곳에서 해설사들이 방문객에게 우주와 관련된 체험을 제공할 계획 - 고흥군은 우주항공 중심도시로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며, 해설사 프로그램이 그 핵심 전략 중 하나로 자리잡고 있음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내용
		□ 사천·진주 우주 분야 투자진흥지구 지정 탄력 (2024.10.02) - 최근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사천시와 진주시를 중심으로 한 투자진흥지구 지정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 법은 우주산업 클러스터에 세제 지원을 포함한 근거를 제공 - 경상남도는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사례를 바탕으로 우주항공기업 유치에 큰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이번 법안 통과로 사천과 진주 지역의 항공국가산단에 대한 기업 유치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음 - 법안에는 우주산업 클러스터와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에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고, 관련 연구기관과 국제기구 지원을 포함한 정주 여건 조성 방안이 포함 - 경상남도는 앞으로도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통과를 위해 힘쓸 계획이며, 이를 통해 경남을 세계적인 우주항공복합도시로 발전시킬 계획

□ 국가 및 지방기관 연구 동향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내용
수소	국가기관	- (해당 없음)
	지방기관	□ 평택항 수소모빌리티 스타트업센터 입주사 3곳 확정 (2024.09.30) - 평택항 수소모빌리티 스타트업센터는 하이리움산업, 수플랜트, 서안에너지 등 3개의 스타트업을 최종 입주 기업으로 선정함. 이들 기업은 수소모빌리티 용 액화수소 저장탱크 개발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 - 스타트업센터에 입주한 기업들은 사무 공간과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받으며, 수소 관련 기술 연구와 제품 개발에 집중할 예정임. 이 지원을 통해 평택항을 중심으로 한 수소 스타트업 생태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 - 평택항만공사는 경기도의 수소 산업 육성 계획에 따라 평택항을 수소 경제의 중심지로 발전시키는 목표를 세우고 있음.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수소 관련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 - 평택항 수소모빌리티 스타트업센터의 개소는 경기도와 평택항이 수소 모빌리티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첫걸음으로 평가
UAM	국가기관	- (해당 없음)
	지방기관	- (해당 없음)
우주	국가기관	- (해당 없음)
	지방기관	- (해당 없음)

□ 민간 및 기타(포럼, 세미나, 토론회 등) 동향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내용
수소	민간기업	□ 테라릭스, 국내 최초 이동형 수소 발전기 CE 획득 (2024.09.30) - 테라릭스는 국내 최초로 이동형 수소연료전지 발전기에 대한 유럽 CE 인증을 획득한 회사임. 이를 통해 테라릭스의 기술력과 안전성이 국제적으로 공인됨에 따라 수소 산업에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는 계기가 마련 - 이동형 수소연료전지 발전기는 정격 출력 1.5kW로 특장차, 물류 장비, 가정용 비상 전력 공급 등에 사용될 예정임. 이 발전기는 충전 횟수가 적고 안전성이 뛰어난 장점으로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가능성을 보임 - 테라릭스는 이번 CE 인증을 바탕으로 전북탄소융복합 규제자유특구 사업에 참여할 예정임. 이는 향후 수소도시 프로젝트에도 연계될 예정으로, 회사의 시장 확장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 - 테라릭스는 향후 2026년 IPO를 목표로 세계적인 수소연료전지 기술력을 확보하는 데 집중할 계획임. 이를 통해 대용량 연료전지 시장 진출과 글로벌 시장 점유율 확대를 목표로 설정
		□ '정의선 오른팔' 장재훈의 세번째 시험대... 현대차 '수소'에 쏠리는 눈 (2024.09.30) - 현대차 장재훈 사장은 올해 수소 사업에 주력하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음. H2MEET 전시회에서 수소 기술을 직접 발표하며 현대차의 수소 비전을 강조한 것은 그의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임. - 현대차는 넥쏘 2세대 모델 출시를 앞두고 있으며, 수소연료전지 사업과 상용차에서의 수소 기술 적용을 통해 수소 모빌리티 시장에서의 성과를 기대하고 있음. 이는 장재훈 사장의 주요 과제로 부상하고 있음 - 장재훈은 GM과의 협력, 체코 스코다와의 MOU 체결 등 글로벌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현대차의 수소 사업 확장을 노리고 있음. 현대차의 수소 사업은 전기차 시장의 장기적인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중요한 전략임 - 장재훈은 현대차의 수소 사업이 미래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현대차의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할 계획임. 향후 수소 시장에서의 성과 여부에 따라 그의 리더십도 평가받을 전망이다
	대학교	- (해당 없음)
	해외	- (해당 없음)
	기타	□ 한국수소산업협회, 탈탄소 선박 상용화 관련 논의 (2024.09.30) - 한국수소산업협회는 부산 호텔아텔라에서 ‘미래 탈탄소 선박의 상용화를 위한 기술 및 실증방안 세미나’를 개최함. 이 행사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안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내용
		전기반 40인승 수소추진 선박 경제성 분석 및 네트워크 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열렸으며, 수소 추진 선박 기술과 실증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음 - 세미나는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의 액체수소 실증설비 구축 △케이조선의 LNG 개질 수소 혼소 추진 선박 △한국선급의 안전기준 개발 동향 등 6개 기관에서 다양한 주제로 발표가 진행 - 이번 세미나를 통해 수소추진 선박 관련 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전문가 간 네트워크 교류가 이루어짐. 협회는 2단계 사업에서도 관련 기술 현황과 솔루션 도출을 위한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 - 협회는 2014년 출범 이후 수소산업의 성장과 수소경제사회 조기 진입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
UAM	민간기업	□ “UAM 등 미래 먹거리 발굴”...현대엘리베이터, 한·중 R&D 인적 교류 세미나 (2024.09.30) - 현대엘리베이터는 승강기 경쟁력 강화와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해 본사와 중국법인의 R&D 조직을 통합하는 '원팀' 전략을 추진함. 9월 25일부터 28일까지 충주 스마트캠퍼스에서 열린 'R&D 인적 교류 세미나'에서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하고 글로벌 인재를 육성 - 본사 CTO 조직과 중국법인 R&D 부서가 협력해 제품 설계 및 개발 방향을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확장하며, 역할과 책임을 재정립함. 이로 인해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투트랙 전략'으로 본사는 선행 연구, 중국법인은 제품 개발에 집중할 계획 - 현대엘리베이터는 이 협력을 통해 승강기 경쟁력을 강화하고, 모듈러 승강기 개발과 UAM 버티포트인 H-PORT 사업 등 미래 신기술 시장 개척에 속도를 낼 전망 - 내년 완공될 충주 스마트캠퍼스의 국내 최고층 테스트타워는 초고속 엘리베이터와 H-Port 등 신기술 개발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
	대학교	- (해당 없음)
	해외	- (해당 없음)
우주	민간기업	- (해당 없음)
	대학교	□ KAIST '우주'에 힘 실는다... 우주연구원으로 기술 역량 총집결 (2024.10.02) - KAIST는 9월 30일 우주연구원을 개원하여 우주 분야 기술 역량을 집중시켰다고 발표함. 이는 뉴스페이스 시대에 맞춰 우주 임무와 핵심 기술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 - 우주연구원은 KAIST 인공위성연구소, 한화 스페이스허브-KAIST 우주연구센터, 페리지-KAIST 로켓연구센터 등을 포함해 우주기술혁신인재양성센터와 우주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내용
		핵심기술연구소 등을 추가로 설립할 계획 - 인공위성연구소는 우리별 1호 개발로 국내 우주 개발의 역사를 썼으며, 현재는 우주쓰레기 포획 기술 개발을 추진 중임. 2027년까지 우리별 1호를 회수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 - KAIST는 우주연구원을 통해 2028년까지 600억 원 이상의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고, 1500명 이상의 우주 전문 인재를 양성할 계획
	해외	□ 전통 갑옷 닮았나?...중국 달 탐사용 새 우주복 공개 (2024.10.01) - 중국 유인우주국(CMSA)이 새로운 달 탐사용 우주복을 공개했음. 이 우주복은 달의 극한 환경에서 작업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중국 전통 갑옷에서 영감을 받은 디자인을 채택 - 우주복은 하얀색을 바탕으로 붉은색 줄이 들어가 있어 중국의 상징성을 강조하며, 달 착륙과 탐사를 위한 중국인의 용기와 개척정신을 표현 - CNN은 이 우주복 공개가 중국의 우주 탐사 계획에 있어 중요한 시점에서 이루어졌다고 평가함. 중국은 2030년까지 달에 우주인을 착륙시키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음 - 중국은 이미 화성 탐사, 달 탐사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진행해왔으며, 이번 우주복 공개는 중국이 우주 분야에서 세계 주요 국가로 자리매김하려는 노력을 보여줌
		□ 스페이스X 우주선, ISS 우주비행사 귀환 위해 출발 (2024.09.30) - 스페이스X의 팰컨9 로켓이 미국 플로리다에서 발사되어 국제우주정거장(ISS)에 있는 우주비행사들을 귀환시키기 위한 임무를 시작함 - 스페이스X의 드래건 우주캡슐은 미국 보잉사의 우주캡슐 스타라이너의 결함으로 인한 지연된 임무를 대신 수행하게 되었음 - 드래건은 로켓 추진체에서 성공적으로 분리된 후 자체 기동을 통해 ISS로 향하는 궤도에 진입함. ISS에서 우주비행사 2명을 귀환시키는 것이 주요 임무로 설정 - 스타라이너의 첫 유인 시험비행은 기체 결함으로 지연되었으나, 드래건이 성공적으로 이 임무를 이어받아 우주비행사 귀환을 수행할 예정

-끝-